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23.(화) 13:00 <12.24(수) 조간> 배포 2025. 12. 23.(화)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까?” 청년세대의 고민에 산업통상부가 답하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2030 청년세대 31명과 토크콘서트 개최 -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AI·반도체… 어디에 기회가 있나요?”, “수도권, 취업 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2030 청년세대의 고민을 장관이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3일(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지타워에서 청년 31명과 함께 ‘취업과 창업,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을 듣다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묻다 ▲지역, 창업, 재도전 가능한 사회를 논하다 등 3개 분야로 나눠 2시간 동안 열렸으며, 청년 참가자들의 질문에 김정관 장관이 답하고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를 비롯해 총 849명이 온라인으로 사전에 제출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 청년세대는 ‘미래 유망 산업 전망’(163명)과 ‘AI 시대 개인 역량 강화’(78명)에 큰 관심을 보인 동시에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62명)에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창업 지원과 실패시 안전망 문제’(77명), ‘지역 일자리 부족’(51명) 등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남겼다.

김정관 장관은 “AI시대 급격한 변화에 따른 청년세대의 불안감에 공감하지만, AI를 통해 산업 전반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에 일자리뿐 아니라 우리 산업과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고 강조하고, “AI 전환은 기술혁신과 함께 사람에 대한 투자가 병행돼야 성공할 수 있는 만큼 AI 인재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 평생 도전하고 싶은 산업이 지역 곳곳에서 꽃 필 수 있도록 주거·문화·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년 창업자들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청년세대의 생각과 고민이 정책에 더 깊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담당 부서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정대 (044-203-4570)
		담당자	사무관	구상옥 (044-203-457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2030 청년세대 토크콘서트 개요**

□ 개 요

○ 일시: 2025. 12. 23.(화) 13:00~15:00

○ 장소: 구로디지털단지 지타워 5층 킥스업(KICXUP) AI라운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 참석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및 청년 참가자 31명

○ 주제: 2030 청년세대가 묻는 취업과 창업의 길,
그리고 한국 산업의 미래

□ 세부 계획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2:50		▸참석자 사전 등록	
13:00~13:05	(5′)	▸단체 기념 촬영	
13:05~13:10	(5′)	▸김정관 장관 모두 발언	
13:10~14:40	(90′)	①청년들의 일자리 고민을 듣다 ②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묻다 ③지역, 창업, 재도전 가능한 사회를 논하다	사회: 대변인
14:40~14:45	(5′)	▸김정관 장관 마무리 발언	
14:45~15:00	(15′)	▸개인별 기념촬영 후 종료	